Entertainment p/18

한재석·박솔미 4월 결혼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26일 화요일 제2878호 www.metrobusan.co.kr

Sports p/22

괴물 첫 등판 1이닝 무실점

국민행복 꿈꾼 청와대의 첫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제2의 한강기적 만들자"
창조경제·문화 등 국정운영 3대 키워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국민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0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인수받고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핫라인을 통해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2·3면>

◆ "능력위주 사회로 바꾸겠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 취임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사에는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에서 제외됐던 '경제민주화'가 다시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방점을 둔 창조경제와 공정시장이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강조했다.

창조경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를 꽃피울 필수요소로 제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육아, 복지를 아우르는 국민 맞춤형 복지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성장에도 방점을 찍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확실한 북 핵 억지력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 5300자 짧지만 임팩트있는 취임사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새로운'(14번), '희망'(9번), '꿈'(7번) 등 희망적 의미를 담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역대 취임사의 단골 단어인 '국민'(57번)이었다. 이어 '행복'이란 단어는 20번, '창조경제'(8번), '경제부흥'(4번) 등 경제 용어만 15번 언급됐다. 또 연설문은 "사람들 추운데 취임사는 짧을수록 좋다"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300여 자로 역대 취임사에 비해 분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권유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큰 영애에서 대통령으로… 붉은 한복 입고 33년 만에 돌아오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복을 입고 국민의 소망과 기원 메시지가 담긴 복주머니 개봉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옷 5벌 갈아입고… 에쿠스 방탄차 타고… '특별했던 취임식'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5일 5색 '패션 정치'로 눈길을 끌었다. 또 역대 대통령 취임식 사상 처음으로 국산 방탄차를 이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공식 일정을 수행하면서 국산 에쿠스 리무진의 길이와 기능을 대폭 강화한 에쿠스 스트레치드 방탄차를 탔다. 이 차는 현대자동차가 별도로 개발해 최근 청와대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방탄차가 처음 개발된 것은 현대차가 에쿠스 방탄차를 만든 2009년으로 그 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5번이나 옷을 갈아입어 화제를 모았다.

박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나올 때는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으나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녹색 정장의 취임식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금색 꽃무늬 장식이 들어간 붉은색 두루마기를 겉에 입고 파란색 치마를 입었다. 이어 청와대에서 기진 임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비취색 재킷을 입었고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초청 만찬에서는 디홍색 한복을 한껏 뽐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평소 즐기지 않던 목걸이와 귀고리를 착용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패션에 대해 김혜연 한국패션문화협회장은 "현충원 참배 때의 검은색 코트, 취임식과 정상회담의 녹색 비지 정장은 군복을 연상시켜 안보를 강조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힌다"면서 "광화문 행사에서 선보인 화사한 한복과 올림머리는 고 육영수 여사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고 해석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이 노래처럼 기적이" 7만명 싸이 말춤

한류콘서트 빰친 대통령 취임식 한바탕 축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은 국민 대통합 축제 란 이름에 걸맞은 한류 콘서트를 연상케 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식전 행사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신비랑 나는 길놀이로 시작됐다 이어 김영임 명창이 민요합창단과 함께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맞춰 개사한 '꽈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며 흥겨움을 더했다

이어 인기 오락프로그램 '개그콘서트' 팀이 MC로 등장해 행사 진행을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당선인을 향한 코미디하며 언된다 발말 존겨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던 코너 '용감한녀석들' 의 콩트도 화제를 모았다 이날 용감한녀석들은 웃음기를 빠져한 채 노래만 불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현재의 문화 강국에 이르는 과정을 각 시대의 대표곡으로 표현하는 공연이 열렸다

1950~60년대를 상징하는 공연으로 뮤지컬팀이 미스터 브라스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관악 연주에 맞춰 퍼포먼스를 벌였다 신세대 트로트 가수 장윤정은 '어머나' '짠짜라' 를 불렀다 인기 아이돌그룹 JYJ는 1990~2000년대를 맞이 '난 알아요' 를 포함한 대표곡 리믹스를 불렀다

클라이맥스 분위기는 2010년대를 상징하는 싸이에서 최고조에 올랐다 검은색 수트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식전 마지막 무대에 오른 싸이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커다란 즐거움과 기적 같은 일을 맛보게 해준 곡을 부르겠다"면서 "이 노래처럼 오늘부터 즐겁고 기적같은 일이 넘쳐지길 국민한 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고 흥을 돋우었다 특히 싸이는 '강남스타일'을 부르기 전 7만 여 참석자들에게 함께 말춤 추기를 권했고 이윽고 국회 앞마당이 말춤으로 들썩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안숙선 인순이 최정원 나윤선 등 4명의 디바가 '아리랑 판타지'를 부르며 축제처럼 열린 취임식은 성대하게 마무리됐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수 싸이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식 이모저모

박찬호·장미란도 국민대표로 참석

5촌조카 은지원 가족석에 앉아

○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 한국인 첫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아덴만 작전의 영웅 석해균 선장, 고 한주호 준위의 부인 김말순씨, 고 이태석 신부의 형 이태영 신부, 조광래 니로호발사추진단장 등이 국민 대표 자격으로 단상에 앉았다. 박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씨, 남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5촌 조카인 방송인 은지원씨는 가족석에 자리했다

광화문에 박정희 캐딜락 등장

○ 이날 오후 4시30분께 박모(54)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타던 차"라며 캐딜락 승용차 한 대를 광화문광장에 옮겨다놓고 사라졌다. 박씨는 트럭에 검은색 구형 캐딜락 승용차 한 대를 싣고 광장 내 세종대왕 동상 앞에 지게차를 이용해 내려놨다. 지게차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광장 가장자리에 설치된 유리 바닥이 일부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윤희기자

대통령이 임명 공직수 7000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6000~7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5일 일부 실장과 수석비서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첫 인사권 행사다. 또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17개 부처 장관과 각종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의 고위직을 임명하게 된다.

정부 내 일부 위원회의 소속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인사권 대상자의 규모는 유동적이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내각,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검찰, 경찰 고위직 같은 특정직이다. 여기에 4급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제청, 임명할 수 있다. 장·차관급, 실국장 1~3급 공무원은 1200여 명에 달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4800여 명이다.

대통령 직속기관 외에도 헌법기관 고위직 중 26명도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립대 총장 44명도 임명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 등 인사권 대상자도 140여 명에 달한다. /채현주기자

밝은 웃음 축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취임경축연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0시~24시 강행군

'대통령의 첫날' 새벽부터 분단위로 일정 소화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5일 24시간 쉴 틈 없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날 0시를 기해 통치권을 인수받은 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군 핫라인을 통해 정승조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상황 첫 보고를 받았다.

오전 10시에는 사저를 나와 동네 주민들과 짧은 시간 인사와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곧바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정부 대표와 현충원 안장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분향을 마친 박 대통령은 지체 없이 취임식장으로 향했으며 10시55분께 도착했다.

취임식 이후 박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 희망 메시지를 전달받는 '복주머니 개봉 행사'에 참석했다.

오후 1시30분께 청와대로 방향을 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청운·효자동 주민들의 환영 속에 청와대에 입성했으며 곧바로 전자결재를 통해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후 임명장 수여와 각국 정상급 외빈 경축사절단과 면담 회동을 가진 박 대통령은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연회와 7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만찬에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빈만찬으로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각종 인수인계와 비서관 인선 등의 보고를 밤늦게까지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현주기자 cjason@metroseoul.co.kr

첫월급 1930만원

25일 행정안전부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1억9225만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1602만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연봉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 없이 다달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순수 연봉만 따지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월급 수준보다 51만원가량 더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연봉 외 급여로 받는 매월 직급보조비 320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합하면 한 달에 1930만원을 받는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의 총 보수는 2억3200만여 원이다. /채현주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 개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다뤄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2차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 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위원회에는 정범하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구 위원(부산YWCA 사무총장), 안영기 위원(전 부산상공회의소 행정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상품권 취소에 따른 수수료 소상 요구 ▲택배 운송 중 변질된 어패류에 대한 배상 요구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주문 가구 취소 및 결제대금 환급 요구 등의 피해 사례 7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한은서 저리 대출 지원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부산지역 사회적 기업에 대해 총액한도대출(C2)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중소기업 자금 운용 기준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 4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과 부산시가 인증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이번 조처로 사회적 기업 등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취급액의 최대 50%를 해당 금융기관에 낮은 이자로 우선 지원하게 된다.

한편 현재 부산지역에는 사회적 기업 50개사와 예비 사회적 기업 107개사가 지정돼 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락
편집국장 조신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형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9-2100
독자센터 02)721-9862

사상광장로 명품 가로공원 변신

시·구, 사업비 50억 들여 새단장… 허브식물·실개천 등 어우러진 녹지공간 조성도

부산 서부권의 교통 중심인 사상광장로가 명품 가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25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사상구 괘법동 사상광장로의 르네시떼~애플아울렛 간 700m 너비 30m 구간에 총 사업비 50억여 원을 들여 새단장 했다.

이 사업은 2010년 설계 현상공모를 시작으로 약 2년에 걸쳐 진행됐다. 이 일대 골목길 제색와 교통체계 정비 및 포장마차 등 60여 개의 도시 노점상을 철거 등으로 최근 공원 조성과 도로포장을 마무리했다.

사상광장로는 지하철과 국철, 경전철이 동과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그동안 경전철 공사와 불법 주차 등으로 슬럼화되면서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사상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 사상광장로가 허브식물과 실개천 등이 어우러진 가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작은 사진은 변신 전의 모습

이에 시와 사상구는 이 일대 도로와 경전철 고가로 아래에 방치된 불법 주차 차량을 철거하고 보행도로와 문화 광장, 버스·택시승차장, 자전거도로 등을 만들어 쾌적한 도로로 탈바꿈했다.

또 느티나무 등 4만2000여 그루를 비롯해 50여 종 5만여 그루에 이르는 다년생 초화 및 허브 식물과 실개천 등이 어우러진 녹지 공간을 조성, 서부산권의 새로운 도심 명품 가로공원으로 꾸몄다. 특히 버스·택시·경전철·지하철·자전거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경관 조명을 도입해 차별화된 형태의 가로공원을 연출했으며, 현재 문화공간인 컨테이너아트터미널이 공사 중이고 인근 감전유수지에는 경관음악분수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수희기자 ksh@metrobusan.co.kr

운동화야 구두야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illegible]에서 외출이 잦아지는 봄을 맞아 운동화와 5cm 높이의 구두굽을 결합한 신발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야경 즐기며 별자리 체험하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참가자 모집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가족이 함께 참여해 부산의 야경을 즐기면서 천문우주과학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부산의 야경 별빛과 함께하는 가족사랑프로그램' 참가자를 25일부터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광안대교 및 천문대 야경을 배경으로 한 행복한 우리 가족 사진 촬영 ▲우주왕복선 및 모형망원경 만들기 ▲천문지도자의 천체 강의와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행사 일정은 3월부터 4월, 7월에서 9월까지 매월 2회씩 금요일 저녁에 실시(총 10회)되며 회당 25가족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부산지역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이며 참가 희망자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25일부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별밤 프로그램 참여가 한 번도 없었던 가족 및 소외계층 가족 등이 우선 선정된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가족 단위로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051)610-3221~7

다음달 6일까지 쌀가공품업체 시설·보수 지원 공모

부산시는 올해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내달 6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 500억원으로 쌀가공업체에 400억원,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에 100억원을 융자 지원해줄 계획이다.

쌀가공업체에는 한 곳당 시설자금을 50억원, 시설개보수자금은 최고 20억원, 운영자금과 수매자금은 각각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다.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은 시설자금 15억원, 개보수비 5억원을 지원하고 보관창고는 시설자금 5억원과 개보수 2억원까지 지원해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달 20일까지 신청 업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사조사 후 4월부터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오늘 혁신기업인상 시상식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26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2013 부산혁신기업인상 시상식 기업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부산혁신기업인상은 기술과 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협의회 또는 기업인을 선정해 부산시장 명의의 상을 주는 것.

올해는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부산바이오기업협의회, 경영혁신부문 최우수상에 ㈜청산에식품, 기술혁신부문 최우수상에 ㈜에어비행그린텍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울산중기청,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디자인센터의 기업지원사업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상담 업종분석 교육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4월 11일부터 금융투자회사 영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을 위한 업종 분석' 과정을 개설키로 하고 다음달 8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은 올해 상반기 주요 산업(업종)별 전망 및 기업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주식투자 상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다.

주요 내용은 기업 전망 및 재무제표 분석 기법, 업종별 최근 현황 및 이슈, 업종 대표 주식에 대한 전망 등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머 있는 제자 되길…" 은퇴 교수 연구서 발간

은퇴를 앞둔 대학 교수가 제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유머 연구서를 발간해 화제다.

부경대는 36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오는 28일 퇴임하는 유동운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문화의 패밀자 - 유머'를 펴냈다고 25일 밝혔다.

책 발간 동기는 제자들이 창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 책은 유머를 잘 활용하면 고정관념을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로 생활할 수 있다는 스승의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책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 피카소, 고흐 등에 관한 유머를 접할 수 있다.

또 이들의 유머가 생존 본능, 성 본능 등 인간의 다양한 본능을 어떻게 변주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안내해 준다.

소망풍선 날리는 입학식 25일 오전 부산 사상구 신라대 다온동즈대시 열린 2013학년도 입학식에 참가한 대학 새내기들이 각자의 소원을 적은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이 대학에는 올해 2430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뉴시스

초등학력 인정받으세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비문해자를 위한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은 학령기에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규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부산시교육감이 초등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초등학교 6년 교육과정을 3년으로 단축해 운영하며 1단계(초등 1~2학년 수준) 140시간, 2단계(초등 3~4학년 수준) 240시간, 3단계(초등 5~6학년 수준) 240시간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 1년 과정으로 운영하며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학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들을 위해 한글을 가르치고, 초등 학력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1, 2단계 설치 학교를 14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3월 중순 개강해 1년간 운영된다. 1단계 교육과정은 주 2회, 회별 40분씩 2교시로, 2단계 교육과정은 주 3회, 회별 40분씩 2교시로 각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51)860-0473

에어부산·대한항공 항공료 30% 할인 · 숙박료 반값 혜택 · 시티투어 버스 무료 탑승권

부산으로 관광 오이소~

한달간 프로모션 진행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와 항공사, 호텔, 관광공사 등이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어부산, 대한항공 등과 공동으로 관광 비수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 달간 관광객 유치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 부울경방문의 해'와 부산관광공사 창립 기념 이벤트로 펼치는 이번 행사는 에어부산과 대한항공을 이용해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항공, 공항주차장, 아르피나 호텔 등 요금 할인과 시티투어버스 무료 탑승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한항공은 프로모션 기간 중 일부 편명에 대해 김포 출발 부산 항공권을 주중에는 최대 30%, 주말에는 25% 할인하고 에어부산도 동일 구간 항공권을 주중 최대 30%, 주말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단, 내달 1~3일은 제외하며 공항세와 유류할증료는 따로 계산된다.

이와 함께 이 항공을 이용한 관광객에게는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숙박료 50% 할인(월~목), 부산 시티투어버스 무료 탑승권 제공, 김해공항 국내선 주차장 48시간 무료 이용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광 전용 열차를 이용한 관광테마열차 운행과 함께 항공 여행상품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벤트 참여는 대한항공(kr.koreanair.com), 에어부산(www.airbusan.com) 홈페이지 및 모바일 발권을 이용하거나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www.arpina.co.kr) 사전 예약 후 탑승권 또는 모바일 탑승권을 이용하면 된다.

또 김포공항 국내선 대한항공·에어부산 카운터에서 시티투어버스 시티투어(www.citytourbusan.com) 무료 탑승권을 받아 버스를 탈 때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51)780-2171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국제연극제 자원봉사자 모집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부산시 일원에서 열릴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섰다.

자원봉사자는 부산국제연극제 행사 기간 중 활동할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기획(홍보·티켓), 총무(총무·대외 협력), 행사 운영(운영·무대 지원), 행사 진행(진행·의전) 등 총 4개 분야 8개 부문이며, 서류 심사 및 면접 전형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 모집 기간은 3월 5일까지며 공식 홈페이지(www.bipaf.org)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 그림 박상철

'레 미제라블' 작가 위고 태어남

1802년 2월 26일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문호 빅토르 마리 위고가 브장송에서 출생했다. 위고는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이었던 아버지의 뜻대로 법학을 공부했으나 시와 희곡을 써 유명해졌고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으로 확고한 명성을 얻었다. 여배우 등 수많은 여자들과의 추문으로 감옥에 가기까지 한 그는 칩거한 채 써낸 대작 '레 미제라블'을 8회에 걸쳐 세기적 걸작으로 우뚝 섰다. '레 미제라블'은 38여 차례, '파리의 노트르담'은 10여 차례 영화화 됐다.

본사인사

◆신임 ▲뉴미디어국 <부국장> △온라인뉴스부(총괄) 김희성 <부장대우> △미디어운영부(총괄) 김재현 <차장> △미디어운영부 개발팀(팀장) 김기석

◆승진 ▲편집국 <부장> △정치사회부 안용기 △콘텐츠디자인팀 박상철 <부장대우> △연예스포츠부 조성준 <부장직대> △생활레저부 전효순 <차장> △편집디자인부 허정현

◆전보 ▲편집국 <부장> △뉴스총관 겸 편집디자인부 민병무 △경제산업부 이국명(글로벌부장 겸직) <차장> △경제산업부 금융팀 김지성(팀장) △연예스포츠부 스포츠팀 김민준(팀장) <차장대우> △정치사회부 사회팀 배동호(팀장) △경제산업부 산업IT팀 박성훈 <기자> △경제산업부 산업IT팀 정윤희 △경제산업부 금융팀 김현정 △생활레저부 레저팀 권보람 △글로벌부 국제팀 조선미 ▲뉴미디어국 <차장대우> △미디어운영부 개발팀 전석준 <기자> △온라인뉴스부 신화준 △온라인뉴스부 김민지

전국 600만 자영업자 3·1절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돌입

독도가 일본땅? 뿔났다

국내 자영업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독도 지키기'에 나선다.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료를 파견한 것에 반발한 단체행동으로 해당 제품 판매량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금융·유통업계에 따르면 회원 약 600만 명을 거느린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80여 개 직능단체와 60여 개 소상공인 자영업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3월 1일부터 일본 제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주부터 모든 영업장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스티커'를 부착하고 고객의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주요 품목은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일제 담배 '마일드세븐', '아사히 맥주', '유니클로', '도요타', '렉서스', '혼다' 등이다.

이번 반일 불매운동은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소비자와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지던 이전과는 달리 공급권을 쥔 소매점 조직이 대거 가세했기 때문이다.

학사모 던지며 기념촬영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들이 25일 서울 교정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내 일본제품 80% 취급

직능경제인총연합회,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가례감시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은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제품의 80%가량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KOSDAQ
522.43
525.08
524.44
526.36
527.27
-1.08
2/19 2/20 2/21 2/22 2/25

Nikkei (일본)
11662.52 (+276.58)
Hang Seng (홍콩)
22820.08 (+37.64)
Shanghai (중국)
2325.82 (+11.66)
Dow Jones (미국)
14000.57 (+119.95)

EXCHANGE RATE

달러	1085.50
엔 (100)	1154.42
유로	1436.57
위안	174.15

코스피 상승세 지속 전망

최근 2000선을 회복한 주식시장이 현재의 상승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이 같은 방향성이 형성됐다고 입을 모았다.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와의 키 맞추기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25일 KDB대우증권 한치환 연구원은 "코스피가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반등 추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주에도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과정에서 2012년 이후 형성된 박스권 돌파 시도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나대투증권 양경식 연구원도 "이제는 단기적 불확실성보다는 장기적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 더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성기자

LG 올해 글로벌시장 겨냥 "스마트폰 4000만대 팔 것"

LG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4000만 대 이상 팔겠다고 공언했다.

LG전자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장인 박종석 부사장은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4분기에 83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았다"면서 "올해는 분기 평균 1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 것"이라고 장담했다.

아울러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을 지난해의 갑절 이상 판매하겠다고도 선언했다.

LG전자는 올해를 스마트폰 대중화의 해로 보고 옵티머스G 프로 등 최고급 시리즈 외에도 3세대(3G) 스마트폰 L시리즈2와 보급형 LTE 스마트폰 라인업인 F시리즈 등 공개했다. /박성훈기자

서울 땅값 다시 하락세로

서울지역 땅값이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 대비 0.03% 상승하며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의 땅값이 전월 대비 0.01% 하락한 가운데 지방이 0.11% 올랐다.

서울 땅값은 전월 대비 0.06% 하락하며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하락했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0.66%로 11개월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박성훈기자

황당한 외제차 부품값 '거품' 뺀다

손보업계 '보험료 인상 주범' 유통구조 등 개선 나서

고급 외제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해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접촉사고가 나면 국산차에 비해 몇 배나 많은 수리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보험 처리 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걱정만 커진다. 외제차는 부품 수급이 불투명해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탓이다.

정부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외제차 부품 가격 투명화에 다선다. 외제차 부품 가격을 정상화해 손보사의 손해율을 개선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도 줄어든다고 본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손보업계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의 핵심은 손해율 개선이다. 시급한 사안으로 외제차 부품 가격 투명화와 유통구조 개선이 꼽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외제차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배 비싸다. 공임도 5.3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제차 수리비가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또 보험 가입 기준으로 보면 외제차는 등록 대수 기준으로는 전체 승용차의 4%에 불과하지만 지급된 보험금의 비중은 12%나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외제차가) 눈에 보이는 신차 가격을 낮추면서 딜러 마진이 줄어드니 서비스센터를 통해 부품값과 공임비 등으로 메운다는 얘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2010년 기준 평균 수리비를 보면 국산차가 88만원인 반면 외제차는 292만원이다 했다"며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 문제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외제차 업계의 '제멋대로 가격 매기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BMW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한국토요타 등 4개 수입사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교육로봇 '아띠' 스페인서 매력발산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3'에 참가한 SK텔레콤이 25일 유아교육용 로봇 '아띠'를 선보이고 있다. '아띠'는 통합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교육용 앱을 탑재했다. /연합뉴스

빚 있는 가구의 60% "원리금 탓 생계곤란"

빚이 있는 가구 중 60%는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가구가 절반이 넘고, 이 중 7.7%는 과다 부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부가조사) 결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57.1%다. 전년 54.0%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12월 전국 2119개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출 용도는 거주 주택 마련이 34.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생업자금 25.4%, 전월세보증금 12.6%, 사업자금 12.2% 등이었다.

지난해 은행에 신규 대출 또는 만기 연장 대출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의 30.0%였다. 이 가운데 23.0%는 대출 신청액 일부만 받았고, 2.4%는 아예 받지 못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 총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과다 부채 가구는 전체 가구의 7.7%다. 또 부채 가구의 58.9%는 작년에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김지성기자

쌍용건설 8년만에 또 워크아웃되나

4월 증시 퇴출 여부 결정 13위사 위기에 업계 충격

시공 능력 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이 졸업 8년 만에 워크아웃을 다시 추진할 상황에 이르자 건설업계가 재차 충격에 빠졌다.

다른 중대형 건설사도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7~8개 중견 건설사를 '위기'로 분류해 공포감이 팽배한 상태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추진이 임박한 쌍용건설은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4114억원으로 전년 1570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쌍용건설은 2년 연속 적자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 1일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한일건설도 지난해 2억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 이달 중순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도 2011년 2934억원에서 지난해 6148억원으로 커졌다. 삼호, 삼부토건, 금호산업 등 건설사들은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벽산건설, 남광토건, 벽산건설 등 3개사는 자본잠식 우려가 크다. 정상기업인 경남기업도 지난해 2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적자로 전환했다. 신세계건설과 KCC건설의 순이익은 각각 63.4%, 79.8% 급감했고, 계룡건설 순이익도 전년보다 52.8% 줄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 상위권 대형 건설사도 외형은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됐다. /박성훈기자 zen@

의원님의 '게임' 재밌어질까

'새누리 5선' 남경필 게임산업협회장 취임
업계, 정치인 영업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

남경필(48·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2일 게임산업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상 첫 외부 영입이자 현직 중진 의원(5선)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이란 믿음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협회는 게임사 대표가 2년씩 협회장을 맡아왔지만 정치권에 이익단체로서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인 주요 게임사들은 신임 회장이 게임 규제 등 산업에 부정적인 거시 변수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 회장은 평소 e스포츠게임은 물론 K-팝, 국내 드라마 등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2008년부터 국제 청소년 교류사업 중대 일환으로 마련한 한·중 국제 e스포츠대회(IEF)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게임 산업에 애정을 보여왔다.

게다가 남 회장이 여당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게임 관련법 발의 등에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실제 남 회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새로운 게임 규제 법안을 낸 손인춘 의원과도 대화를 나누겠다. 게임 산업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 산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역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산업의 이익만 챙길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론비 코드 성향도 맞는 편이 아니라는 평가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로 통하는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게임산업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 내정된 것도 남 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스마트폰 역시 'IT의 대세'
출하액으로도 PC 첫 추월

올해 스마트폰이 출하액을 기준으로 PC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와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액이 2396억 달러(전망치)에 달해 2186억 달러인 PC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는 스마트폰 출하액이 2045억 달러로 PC(2274억 달러)보다 229억 달러 적었다. 하지만 올해 스마트폰 출하액은 작년보다 17.2% 늘어나고 PC는 3.9% 줄어 역전된다는 것.

한편 출하량 면에서는 스마트폰은 이미 지난 2011년 PC를 앞질렀다. 올해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8억4000만 대로 PC(3억5400만 대)의 2.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성기자 azyhand@

국산차들 유럽 접수 '시동'
다음달 5~17일 '제네바 모터쇼'서 신차 대거 공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고두보는 다음달 5~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열리는 2013 제네바 모터쇼다.

현대차는 ix35 상품성 개선 모델을, 기아차는 씨드GT 5도어·3도어 모델을 공개한다.

콤팩트 SUV 투싼ix의 상품성 개선 모델과 유럽 전략형 차종인 씨드의 고성능 버전인 씨드GT로 잔뜩 위축한 유럽 시장에서 판매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쏘나타 등바디 로 불리는 NC도 이번 모터쇼에서 유럽에 처음 소개한다. 프리미엄 3도어 해치백인 KED-9 콘셉트카도 선보인다.

유럽 7개국 주요 자동차 전문 매체가 주도하는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 9종에 포함된 i30의 최종 선발 여부도 관심사다. 현대차는 i30이 폭스바겐 골프, 벤츠 A-클래스, 도요타 GT86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차'로 뽑히면 유럽 시장에서 선호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각각 모기업인 GM, 르노그룹을 통해 유럽 시장을 노크한다.

한국지엠 주도로 개발된 소형 SUV 트랙스가 전시되고 르노삼성은 하반기 국내에 시판할 소형SUV 캡처를 공개한다.

쌍용차는 중형 SUV 콘셉트카인 'SIV-1'을 최초로 공개한다.

/박성훈기자

층간소음 줄여주는 매트 25일 롯데마트는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놀이방 매트 '친환경 카제가 놀이방 매트(140x170x1.5cm)'를 선보였다. 28일부터 정상가보다 45%가량 저렴한 4만980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 제공

美 모바일 게임사 글루 한국지사 설립

미국의 글로벌 모바일 게임사 글루가 한국 지사를 오픈할 예정이다.

글루 관계자는 25일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국내 지사 인원 채용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오픈 일정이나 인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 브로스', '이터니티 워리어스' 등으로 유명한 글루는 지난해 1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북미 3위 규모 게임사며 국내에도 다수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글루가 한국 지사를 오픈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지사인 글루 베이징에서 한국과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신 모바일게임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카카오 게임하기'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게임 플랫폼의 툴을 기 높이 글루와 같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다.

한편 글루는 이날 '건 브로스'의 후속작 '건 브로스 2'를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신작은 듀얼스틱 기반의 액션 슈팅 게임으로 퍼시와 프란시스 두 명의 특수 요원이 돌아온 우주 특군에 맞서 우주를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전작에 비해 화려해진 그래픽과 다양한 게임 모드 지원으로 흥미진진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 연결을 하면 친구와 함께 멀티플레이 또는 데스매치를 즐길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게임센터 친구 초청도 가능하다.

/박성훈기자

지방살이 최고 불편은 "자녀교육"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중소기업 근로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및 고용환경 개선방향'을 조사한 결과, 지방생활에 있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자녀 교육여건'(29.8%)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쇼핑·문화·의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21.9%), '직계존련 거래부족'(17.2%), '주거마련비용 부담'(15.7%), '출퇴근 불편'(14.0%) 등의 순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자녀 교육여건이 불만인 이유로는 '자녀의 대도시 유학비 부담'(4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초중고 교육여건 미흡'(34.2%), '사교육 학원시설 부족'(14.2%), '보육시설 부족'(10.8%) 등을 차례로 꼽았다.

지방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대도시 직장생활과 비교했을 때 '대도시가 나을 것'(55.0%)이라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지방이 낫다'라는 응답도 45.0%나 됐다. 대도시보다 일자리와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는 지방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상의는 풀이했다. 실제로 대도시에 견준 지방일자리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도시보다 일자리가 적다'는 응답이 80.6%였다.

지방 직장생활이 대도시에 비해 나은 점으로는 대다수 응답자가 '주거여건이 더 낫다'(81.2%)고 답했고, '저렴한 생활비'와 '잦은 가족·친지 간 교류기회'를 꼽은 응답도 각각 79.7%와 64.1%로 조사됐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취업자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성기자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兒落毒全家

metro Peru

La quinua, más cara pero muy rendidora

metro Mexico

Captan un ovni en el cráter del Popocatépetl

metro Russia

Саночники фуражку и

안데스산 곡물 '키누아' 다이어트에 특효
안데스의 선물로 불리는 키누아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메트로 페루는 당카시다 때부터 경작된 것으로 알려진 키누아를 비만 퇴치의 신무기로 쓰기 위해 물착을 '키누아의 해'로 지정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변환 노란색의 좁과 비슷한 곡식인 키누아는 안데스산맥 고산지대에서 자란다. 지방 함유량이 적은 반면 몸에 좋은 지방은 다량 함유돼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멕시코 화산서 UFO 연이틀 포착 '화제'
멕시코 화산에서 미확인비행물체 UFO가 촬영돼 화제다. UFO는 20~21일 포포카테페틀 화산 활동을 촬영 중인 카메라에 잡혔다. 녹화 영상에는 두 개의 발광체가 화산을 향해 날아오다가 사라지는 모습과 발광체가 화산을 활공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포포카테페틀 화산에서 UFO가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길이의 폭이 각각 1km와 200m가량 되는 수직 모양의 거대한 발광체가 분화구 위에 있는 모습이 찍혔다.

돛단배·탱크… 썰매 맞나요

탱크, 잠수함, 비행기…. 전쟁 영화나 군대에서 볼 수 있었던 무기들이 설원에 등장해 화제다.

23일(현지시간) 메트로 모스크바가 '이색 디자인 썰매 대회' 리허설 현장을 찾았다. 이 대회는 4인 1조의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썰매를 타고 200m 길이의 설산을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리허설에서는 돛단배 모양의 썰매가 관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썰매를 디자인한 로만 코스민은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탱크나 비행기 모양의 썰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특별한 썰매를 디자인하고 싶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승리를 향한 질주뿐"이라며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화려한 군모 모양의 썰매도 눈길을 끌었다. 이 썰매를 만든 율가 쿠즈네초바는 "우리 썰매는 군인들이 퍼레이드 행사 때 쓰는 화려한 모자 모양을 하고 있다"며 "이 썰매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우리 팀이 남성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우승팀은 경기 참가자들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투표 기준은 썰매의 참신한 디자인과 속도로, 각 팀은 각각 우수작 세 팀을 선별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팀은 상금 10만 루블(약 350만원)을 받게 된다.

/게가니 루카야노바 기자·김학수 인턴기자

中 인터넷 중독 패륜범죄 '충격'

"컴퓨터 사용 간섭한다" 14세 소년이 부모에게 농약 탄 음식 먹게 해 중태

최근 중국에서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찌르고 음식에 농약을 타는 등 패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쓰촨성에 사는 샤오룽(14)은 살인미수 혐의로 20일 체포됐다. 인터넷 중독인 그는 부모가 컴퓨터를 못 하게 하자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샤오룽 가족은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만든 양배추돼지볶음만 놓여 있었다. 샤오룽은 밥 생각이 없다며 식사를 하지 않았고 부모와 형 부부만 식사를 했다.

저녁 식사 도중 샤오룽의 형은 음식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라오왕은 고기 냄새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식사를 계속했다.

식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오왕은 구토를 일으키면서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했다. 라오왕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감기약을 타서 먹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함께한 다른 가족도 전부 몸에 이상을 느껴 보건소를 찾았고 독극물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은 모두 쓰양시 인민병원에 후송됐다. 특히 라오왕 부부는 쇼크가 와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번 사건은 3일 파출소에 보고돼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과 음식을 검사한 결과 식용유에 맹독성 농약인 '터부포스'가 함유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다섯 식구 중 샤오룽만 음식을 먹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고 그를 조사했다. 결국 샤오룽은 "부모가 인터넷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간섭해서 가족들만 없으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 10월 허난성에서는 아들이 부모를 칼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저우(周)모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그의 어머니는 상처가 심해 완치가 힘든 상황이다.

저우는 "부모가 동생만 편애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학 강사였던 저우는 대학에서 해고된 뒤 장사를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현재는 무직 상태다.

/왕라·조선미 기자

취업 성공한 그들 '네 가지'가 있더라

① 적성 정확하게 파악 ② 인턴십 경험은 기본 ③ 필요한 스펙만 쌓고 ④ 자격증도 신중 도전

"취업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 같은 질문을 하는 구직자들이 많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학과 공부는 물론 등록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 1학년 때부터 취업에 매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도움을 받아 장·단기 계획에 따른 맞춤형 취업 전략을 알아본다.

◆적성부터 파악해야=취업 준비의 첫걸음은 적성 파악이다. 적성에 따라 맞춤식 준비를 해야 취업 성공에 한 걸음 빨리 다가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이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영업·마케팅 분야가 적합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금융이나 회계 직종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획자나 광고인이 적합하다. 커리어 홈페이지(www.career.co.kr)의 직업성향 진단검사를 이용하거나 학생생활 연구소를 방문하면 적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필요한 능력 갖춰라=적성을 파악했다면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외국어 회화 능력은 하루아침에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대학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대기업 입사를 원한다면 토익 점수나 영어 회화 능력도 미리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격증 준비도 맞춤형으로=자격증이 강력한 취업 무기로 떠오르면서 필요 없는 자격증까지 취득하려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취업에는 도움되지 않는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단 등록민간자격보다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공인민간자격 중에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산업인력공단(www.q-net.or.kr) 등을 참조하면 원하는 직장에 필요한 자격증을 파악할 수 있다.

◆풍부한 경험도 쌓아야=요즘 취업 대세는 올드루키(경험을 쌓은 후 재도전하는 신입)다. 그만큼 원하는 분야의 경험은 취업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파악한 적성에 맞춰 동아리활동, 배낭여행, 아르바이트는 물론 인턴십도 도전하는 것이 좋다. 단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성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국열기자 lee@metroseoul.co.kr

서울·경기 도시가스 '젖줄' 역할

이번주 채용기업

yesco 예스코

예스코는 우리나라에 도시가스가 도입된 이래 청정에너지 L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선도해 왔다.

2006년 창립 25주년을 맞아 주식회사 예스코로 사명을 변경하고 더욱 고객 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서울 중심부와 동부, 경기도 동북부를 공급권역으로 하는 예스코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넘어 신에너지 사업, 지역 냉난방 사업, 홈 서비스 사업 등에 진출해 '따뜻함과 행복을 드리는 생활 에너지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예스코는 3F(Family, Fun, Future)'를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제경, 기술 인재 개발(교육), IT/ERP 분야에서 헌신과 책임을 다하고 성취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

지원은 다음달 8일까지 홈페이지(www.lsyesco.com)로 가능하다. /커리어 제공

전문건설 교육원 신입생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은 정시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학과는 인테리어시공, 실내디자인, 토목CAD 등 총 9개 학과이며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매달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교육비는 전액 면제된다.

접수는 다음달 14일까지 온라인(www.kscfcac.c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043)879-2332~4

한우리 독서지도사 과정

사단법인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평생교육원이 직장인, 취업준비생, 주부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책을 토대로 자기계발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설됐으며 수료 후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장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anuricamp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간 채용캘린더

26(화)	삼양인터내셔날(경력) *한국투자공사 *한국정보기술연구원
27(수)	*메크리테리티텔(인턴) *하나투어(신입)
28(목)	*도미노피자(경력) *삼광학용(경력) *한국정책금융공사(인턴)
1(금)	*한헬리칸테크놀로지스 *한국오므론제어기기(신입)
2(토)	*한국전자금융(경력) *대성산업
3(일)	*디케 *제이모락스(경력) *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경력)
4(월)	*인천신용보증재단(신입)

* 서류마감일 기준
* 자료제공: 커리어(www.career.co.kr)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그룹사 채용 계획
2위 건설사 채용
3위 대학생 마케터
4위 제2외국어 우대
5위 금융투자분석사
*2월 18~25일 인기 검색 순위

취업 관문도 훌쩍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위수여식을 마친 학생들이 졸업을 축하하는 헹가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울산시 지방공무원 올해 214명 뽑는다

울산시는 201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모집인원은 7급 2명, 8급 8명, 9급 196명, 연구사 6명, 기능 9급 2명 등 총 214명이다.

장애인 6명, 저소득층 4명, 실업계고 졸업(예정)자 5명은 별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울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거나 주소를 둔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된다.

응시가능 연령은 7급과 연구사는 20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8·9급은 18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원서접수는 1회 4월 8~12일, 2회 7월 15~19일, 3회 8월 19~23일이며 지자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gosi.kldi.or.kr)로 하면 된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다음달 벡스코에서 공동으로 채용설명회를 연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3곳 중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올해 부산에 터를 잡는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한다.

채용설명회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규모와 시험 절차, 경향, 면접 방법 등에 대해 해당 기관 인사담당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규모는 정직원만 350명 정도에 이른다. 건물관리 등 외부용역을 제외한 순수 공채인원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합동 채용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star bag

신곡 티저 공개 '귀요미 포스'

지난해 최고 신인 **이하이**가 가요계 정상을 향해 고삐를 당긴다.

이하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 '1 2 3 4'와 '바수아비'를 각각 발표한 데 이어 3개월여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25일 오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공식 블로그에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는 귀여운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이하이의 모습이 담겼다.

대만-중국 팬파티 2만 인파

슈퍼주니어-M이 대규모 아시아 팬 파티로 '중화권 제왕'의 위용을 뽐냈다.

이들은 21~23일 대만대학교 체육관, 24일 중국 사천성 체육관에서 '2013 슈퍼주니어-M 팬 파티 브레이크 다운'을 열고 총 2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현지 언론은 공항 입국 현장부터 기자회견, 팬 파티 소식까지 집중 보도하며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10세 연하의 회사원과 결혼

개그맨 **김성규**가 나흘 뒤 10세 연하의 회사원 신부와 웨딩마치를 울린다.

이들은 지난해 초 교회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으며 일이 9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은 다음 달 16일 대한동 에스에이치웨 컨벤시아에서 열리며 사회는 그룹 원티드의 전상환이, 축가는 개그콘서트의 신보라·김재욱·이상민 등이 맡는다.

한채아-신소율과 '한지붕'

배우 **손은서**가 소속사를 옮겨 한채아·신소율과 한솥밥을 먹는다.

최근 로하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손은서는 25일 가족액터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양병용 대표는 "손은서는 아직 보여주지 못한 매력이 많은 배우다. 새로운 작품으로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크와 순수… 두 얼굴의 그녀

[illegible]

'아이리스2'서 NSS 부국장 역를 열광

드라마 미국 펜타곤 출신으로 국가안전국(NSS)에 새로 부임한 부국장 최민이 '아이리스 2'에서 그가 맡은 역이다. 테러로 부모를 잃고 사랑하던 남편마저 잃자 NSS에 합류해 거대한 조직 아이리스를 파헤치는 데 앞장선다.

"우리나라에서 제 나이대에 이런 역을 맡게 돼 영광이에요. 세 명의 남자(남편과 두 아들)와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성적인 성격이 되기는 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성격은 못 되거든요. 그래도 최민에 빠지다 보니 점점 매력을 느끼고 저도 그런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

20~30대 젊은 후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타고난 동안 외모와 세월을 잊은 몸매로 비주얼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숏커트 헤어 스타일과 짙은 아이라인의 메이크업, 세련된 오피스룩으로 그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완성시켰다.

"지난 여름에 영화 촬영을 하면서 8kg을 찌웠어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근한 엄마의 모습을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찌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한번 탄력이 붙으니 걷잡을 수 없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까지 다시 5kg을 감량했는데 드라마가 아니었더라면 힘들었을 거예요."

첩보물 출연이 처음이기는 했지만 연기 인생에 꼭 한번 도전하고 싶었던 분야다. 남편이 늘 집에서 미국 첩보 드라마를 즐겨보고 살아서 어느새 자신도 '미드'의 재미에 푹 빠졌다. 좋아하는 '미드'의 제목과 내용을 줄줄 읊는 정도가 마니아 수준이다.

"출연이 확정되고 액션스쿨까지 다니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액션을 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야겠다는 말을 듣고 아쉽지만 내려놓았죠. 몸을 쓰지 않아도 첩보물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남쪽으로 튀어'서 8kg 찌우고 지고지순녀 열연

영화 사회의 관습과 의무를 벗고 자유를 찾아 나서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남쪽으로 튀어' 속 안봉희는 '아이리스 2'의 최민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인물이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수수한 웃차림을 하고 유별난 남편을 반없이 지지하는 지고지순한 여인이다.

"뭐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너무 감정 기복 없이 묵묵히 남편만 따르는 인물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화염병을 들고 저항하는 신에서 안봉희의 진짜 성격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번 작품은 일곱 번째이자 1998년 '기막힌 사내들' 이후 15년 만에 출연하는 영화다.

"너무 오래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어지고 가기보다 다른 배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랐어요. 다시 영화를 하는 배우라는 인식을 주고 싶었어요. 이번 작품을 계기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도전하고 싶어요."

드라마 '달콤한 인생'에서 비키니 몸매를 공개했고 '나쁜 남자'에서는 열 살 연하의 남자 배우와 격정적인 멜로 연기를 선보였다. 그런가 하면 사극 '계백'에서는 냉혈한 왕비 사택비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 나이가 들수록 엄지기 좋아진 수밖에 없는 여배우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1년에 한 작품씩 하고 나머지는 엄마와 아내로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20여 년을 꾸준히 연기하면서 익숙해지고 감이 떨어지는 건 싫었죠. 40대 여배우의 변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기자 [illegible]
디자인/[illegible]

꼭 하고 싶었던 첩보물
온몸으로 매력 느끼죠
여배우 변신 이제부터

드라마·영화 종횡무진 24년차 연기자

오·연·수

'실버라이닝' 제니퍼 로렌스 오스카 품다

제 85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영예…'아르고' 3관왕

이제 갓 숙녀로 접어든 여배우가 골든글로브와 미국배우조합상에 이어 미침내 오스카 여우주연상까지 쥐었다.

제니퍼 로렌스(사진)가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나오미 왓츠와 제시카 채스테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만 나이 22세6개월로 이 영화에서 남편을 잃고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티파니를 열연한 로렌스는 1986년 '작은 신의 아이들'의 마리 매트린(2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수상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

수상자 호명 직후 무대 계단에서 넘어져 객석을 깜짝 놀라게 한 그는 "잊을 수 없는 생활"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벤 애플렉은 세 번째 연출작인 '아르고'로 작품·편집·각색상을 휩쓸며 3관왕에 올라, 이제는 청춘스타란 호칭보다 감독이 더 어울리는 실력파 영화인으로 우뚝 섰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감독(이안)·촬영·음악·시각효과상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은 여우조연(앤 해서웨이)·분장·음향상을 챙겼다. 각본상과 남우조연상은 '장고 : 분노의 추적자'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과 크리스토프 왈츠에게 각각 돌아갔다. 한편 11개 부문에 최다 노미네이트된 '링컨'은 남우주연(대니얼 데이 루이스)상과 미술상 등 2관왕에 그쳤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신세계' 개봉 첫 주말 1위…100만 돌파

이번엔 '신세계' 차례다!

25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정재·최민식·황정민 주연의 누아르물 '신세계'는 22일부터 사흘간 전국에서 86만751명을 불러모아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개봉일인 21일부터의 누적 관객 수는 103만8837명으로 상영 첫 주 가뿐하게 100만 고지를 밟았다.

한국 영화론 여덟 번째로 '1000만 클럽'에 가입한 '7번방의 선물'은 1위를 내주긴 했지만, 85만5942명으로 뒤를 바짝 쫓으면서 누적 관객 수 1038만4787명을 기록했다.

두 작품 모두 자체 극장망이 없는 뉴(NEW)가 투자하고 배급해 눈길을 모은다. 뉴는 CJ엔터테인먼트와 롯데엔터테인먼트, 한때 극장망을 보유했던 쇼박스㈜미디어플렉스 등 그룹 내 복합상영관 체인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기업 계열의 여느 투자·배급사와 다르다.

영화계는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들의 선전이 대자본과 인프라를 앞세운 기존의 3강 체제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조성준기자

'브레이킹 던' 최악의 영화

지난해 할리우드 최악의 영화는 예상대로(?) '브레이킹 던 파트 2'였다.

이 영화는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33회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최악의 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주연(크리스틴 스튜어트)·남우조연(테일러 로트너)·감독(빌 콘돈) 등 7관왕의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스튜어트의 전 남자친구이자 이 작품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로버트 패틴슨은 불행 중 다행으로 수상을 피했다.

/김보일기자 kwon@

대선주조

30%만 암반수인

수돗물 소주입니까?

즐거워예는 천연암반수

100%입니다

즐거워예는 청정지역인 기장(機張) 삼방산 **지하220m**의 **천연암반수** 100%와
대선주조의 정성을 100%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

천연원료 **토마틴**으로
더 부드럽고 아침까지 깨끗하게 – 즐거워 예 16.7°

〈자매품〉

경고: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한재석·박솔미 4월 웨딩마치

배우 한재석·박솔미가 3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다.

이들은 4월 21일 광장동 W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한재석 측은 "두 사람이 최근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날짜와 장소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밝혔다.

한재석과 박솔미는 2010년 KBS1 드라마 '거상 김만덕'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011년 5월 교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연예계 공인 커플로 사랑을 키워왔다. 지난해 9월에는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한재석은 KBS2 드라마 '울랄라 부부' 기자간담회에서 "잘 만나고 있다"고 부인했다.

박솔미는 JTBC 드라마 '친애하는 당신에게' 를 마치고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에 출연했다. 한재석은 영화 '우리들의 천국' 을 촬영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e@

헬로비너스 첫 팬미팅서 눈물

신예 여성그룹 헬로비너스가 데뷔 후 첫 팬미팅을 열고 눈물을 쏟았다. 24일 용산의 브이홀에서 '헬로비너스 1st 미니 팬미팅-아임 유어 비너스' 라는 타이틀로 수 백명의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미니콘서트 형식으로 '비너스' 과 도치림 '오늘 뭐해?' 등 히트곡 무대와 솔로 유닛 무대로 색다른 매력을 쏟아냈다.

행사 마지막에 하트 모양의 종이를 든 팬들이 설레임을 합창하며 공연장을 하트 물결로 가득채우자 멤버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유순호기자 sune@

카리스마 김선아 배우 김선아가 화보 속 강렬한 카리스마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패션 매거진 인스타일의 13주년 기념 화보 촬영 중 미공개 컷을 공개한 그는 붉은 갈색 커트머리와 그윽한 스모키 화장으로 평소 발랄한 성격과 상반되는 매력을 과시했다. 한편 김선아는 현재 동명 웹툰 원작 영화 '더 파이브' 에서 연쇄살인범에게 가족을 잃은 고은아 역을 맡아 촬영 중이다.

/권보람기자 kwon@

▶ 케이 조금 무거워 보이지만 그래도 어쩜 닮습니다

<고소인>

"A씨 친구 진술 조작됐다"

'성폭행 혐의' 박시후 "사건 이송하라" — 내달 1일 출석 통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가 연이어 변호사를 교체하며 갖가지 이유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시후는 19일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다시 잡힌 출석 예정일인 24일에도 출석 예정 시간 불과 두 시간여를 앞두고 갑자기 변호인을 교체하고 "사건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해 달라"면서 소환에 불응했다.

그러나 서부경찰서가 "사건 이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새로 선임된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오전 경찰의 불공정 수사를 이유로 들며 재차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

일단 경찰은 박시후에게 다음달 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으며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푸르메 측은 25일 오후에 또다시 보도자료를 보내 "출석은 법무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면서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해 상급 기관의 결정을 받아볼 것을 요구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고소인 A씨의 친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A에게 들었다"면서 박시후에 대해 불리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A씨 측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란희기자 tuk5427@metroseoul.co.kr

김혜수·오지호 오피스 드라마 '…미스김' 주연

배우 김혜수와 오지호가 KBS2 월화극 '돌아와요 미스 김(가제)'에 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김혜수는 극 중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해 파견된 신원불명의 계약사원 미스 김 역을 맡았다. 오지호는 갑자기 나타난 미스 김 때문에 입지가 흔들리게 된 엘리트 팀장 정규직 역으로 변신한다.

드라마 제작사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리얼 오피스 스토리를 담았다. 특히 계약사원인 미스 김의 활약상을 보며 속이 후련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혜수

오지호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 만능 사원 오오마에를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이달 말 촬영을 시작해 4월 1일 첫 방송된다.

/권보람기자 kwon@

현아 영국 패션지 '팝' 표지모델 됐다

포미닛의 현아가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패션지 '팝(POP)'의 표지를 장식했다.

그는 팝의 28호 커버걸로 등장해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과시했다. 팝 매거진은 영국의 패션 아트 매거진으로 앞서 마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제니퍼 로페즈 등을 표지모델로 내세운 바 있다.

팝 매거진의 편집장 애슐리 히스는 "현아가 싸이의 히트곡 '강남 스타일'을 통해 K-팝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만으로 그만의 스타일리시한 모습과 당찬 매력에 매료됐다"며 커버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버블팝' '아이스크림' 등 솔로곡을 통해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은 현아는 지난해 말 부터 해외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보람기자 kwon@

세계를
알립니다
국내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NEWSis( )
2001년 9월 국내에 복수 뉴스통신사 시대를
열며 탄생한 뉴시스가 올해로 11년을 맞았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뉴시스는 변함없이
24시간 불을 밝히겠습니다.
뉴시스
NEWSis( )
www.newsis.com

베를루스코니 '온몸'으로 반대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슴과 등에 '베를루스코니는 이제 충분하다'는 문구를 쓴 여성이 투표를 하러 온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돌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보증금 없는 '착한 자취방'

서울 동부지역 대학가 건물주 월 20만원에 2인 1실 제공

대학가 주민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내 자취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대학촌 지역발전협의회는 일반 대학 기숙사보다 저렴하고 보증금이 없는 '착한 자취방 주민 기숙사'를 이번 1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 기숙사는 기존의 원룸을 2인 1실로 개조해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에 제공한다. 사립대 기숙사가 평균적으로 2인 1실에 월 30만원, 1인 1실에 월 40만원 이상 하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협의회는 28일까지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 등 서울 동부지역 7개 대학의 기숙사 신청 탈락자,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업의 입주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시생 20명을 선발한다. 이번 학기 서울 행당동과 회기동 두 곳에서 20명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다음 학기나 내년부터 수용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협의회는 광진구와 성동구 등 서울 동부지역에서 자취시설을 운영하는 주민 1000여 명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과 자취시설의 공실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출범시켰다.

협의회 김광우 사무총장은 "기숙사는 부족한 반면 원룸은 비용이 부담스러워 빈방이 많다"며 "우리가 보증금을 포함해 약간의 비용을 포기하면 원룸을 이용할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주거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 1명이 평균 10개의 원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 1개 비만 '주민 기숙사'로 전환해도 2000명(2인 1실 기준)의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빈방도 채울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래기자 unique@metroseoul.co.kr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개정 권고

된장 담그는 날 25일 전통된장 마을로 유명한 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에서 주민들이 잘 띄운 메주를 씻어 간수에 띄우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문제 등과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권고는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당사자들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해고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최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항은 판례에 따라 현재 파산 상태가 아니라도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사전적 의미대로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항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순환휴업·배치전환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고 회피노력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나서 근로자·사용자 측의 요소를 모두 반영한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이를 확대해 시행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김유리기자 grass100@

"경쟁업체 입사한 직원에게도 퇴직위로금의 일부 돌려줘라"

희망퇴직후 2년 이내 경쟁업체에 입사를 금지하는 의무를 어기고 경쟁업체에 들어간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위로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정호제 재판장)는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에게 퇴직위로금 1억3990만원 중 3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퇴직위로금은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도 포함된 것"이라며 "경업금지약정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두 회사 간의 무차별적인 인력 영입으로 인한 시장 거래질서의 건전성 및 공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배동호기자 eleven@

골골대는 척추, 치료비용 확 내린다

자생한방병원 다음달 17일까지 '스마트 케어 프로그램'

단순한 통증부터 퇴행성 디스크질환까지 추나약물·봉침·약침 등 비급여 부담 줄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 한방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이 새해를 맞아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척추디스크 질환 스마트케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강남·노원·목동·영등포·잠실·부천·분당·수원·인산·일산·대전·울산·해운대·창원 등 14개 자생 네트워크 병의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척추 질환의 경우 경제적 여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끝내지 못하고 단순 통증 치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일정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환자와 병원이 서로 윈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에서는 척추를 구성하는 주변의 근육, 인대, 신경, 연골(디스크)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척추 질환이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스마트케어 프로그램'은 척추 질환으로 인한 간단한 통증 치료부터 각종 디스크 질환과 심각한 퇴행성 척추 질환 치료에 이르기까지 척추 질환을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척추디스크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자생 고유의 한약 처방을 기본으로 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추나약물로 알려진 이 한약은 척추 질환으로 손상된 연골과 신경을 재생시키고, 척추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 척추 질환을 바로잡는다. 현재 시카고의 러시 대학병원과 LA의 올림피아드 메디컬센터, 세인트주드 메디컬센터 등 미국 내 척추 전문 의료진이 자생의 의료진과 함께 추나약물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이 외에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억제하는 봉침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약침을 처방해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재발 없는 치료를 시행한다. 추가적으로 질환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직접 손과 신체를 사용해 뒤틀어진 척추를 바로잡는 추나수기요법과 통증 완화·치료를 돕는 한방물리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척추 질환으로 약해진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명품보약도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 받을 수 있다.

치료 기간도 눈여겨볼 만하다.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 척추 질환과 질환의 상태별로 치료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저렴한 가격 역시 장점이다. 다음달 17일까지 스마트케어 프로그램을 선택한 환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최대 50%(프로그램별로 17·35·50% 등 다양한 구성)까지 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한 프로그램의 치료 기간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문의 1577-0007 /김민지기자

샴푸는 저녁에… 7시간 숙면 탈모예방 '골든타임' 아세요?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탈모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이 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탈모증상이 봄까지 이어지기 쉽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겨울철 부터 심해진 탈모증상으로 고민하는 환자들을 위해 '성공적인 탈모예방과 치료를 위한 생활 속 6가지 골든타임'을 발표했다.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것이 좋다. 하루 종일 두피와 모발에 쌓인 먼지와 피지를 자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두피와 모발을 청결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샴푸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세정 후에는 깨끗한 물로 두피와 모발에 남은 잔여 성분을 꼼꼼히 씻어내도록 한다.

머리를 감는 것만큼 말리는 것도 중요하다. 샴푸 후에는 타월로 모발의 물기를 닦아내고, 드라이기를 사용해 두피와 모발을 꼼꼼히 말리도록 한다. 머리를 말릴 때는 찬바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다.

남성형 탈모는 한 번 시작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며 치료가 어려워진다. 뒷머리 보다 앞머리나 정수리 부위의 모발이 가늘어지며 많이 빠진다면 의학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시적인 발모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10년 이상의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환절기 탈모 예방과 치료 위한 6가지 골든타임

위담한방병원 대전에 제 4분원 개원

위담한방병원이 최근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제4분원인 대전 위담한의원의 개원식을 열었다. 서울 대치동에 본원을 두고 있는 위담한방병원은 부산, 가야, 경기 소하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분원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위담한방병원 최서형 이사장을 비롯해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 위담한의원은 지상 2층 규모로 제1·2진료실, 10여 개의 고주파 온열치료실, 제1·2물리치료실, EAV검진실, 수험생클리닉실 등으로 구성됐다. 또 위장과 소화기관을 주력으로 진료할 뿐만 아니라 대전분원 의료진들의 전공에 따라 흉체, 관절·척추 클리닉도 진료한다.

김성동 대전분원장은 "20년 전통의 위담한방병원의 위장 사랑과 소화기관 치료의 기술들을 이어가고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대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담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명품’ 체인지업 통했다

류현진 시범경기 등판 1이닝 1삼진 무실점… "다이어트 열심"

"괴물투수" 류현진(25·LA 다저스)의 명품 체인지업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했다.

류현진은 25일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시범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안타 1개를 내주고 삼진 1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1-0으로 앞선 3회 선발 잭 그레인키에 이어 등판한 그는 좌타자 블레이크 테코트를 힘없는 투수 앞 땅볼로 요리하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어 고든 베컴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두 타자 모두 류현진의 체인지업에 방망이를 댔으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제대로 스윙하지 못했다.

그러나 드웨인 와이즈를 상대로 한 커브는 약간 높게 스트라이크존으로 들어가 3루타를 맞았다. 실점 위기에서 제프 케핑거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고 한숨을 돌렸다.

16개의 공을 던져 9개가 스트라이크로 판정받았고, 경기 전 다짐대로 볼넷을 내주지 않으며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

돈 매팅리 감독은 경기 후 "직구와 체인지업은 정말 좋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류현진과 호흡을 맞춘 포수 페데로위츠 역시 "적응만 하면 메이저리그급 투수로 손색이 없다"고 찬사를 보냈다.

류현진은 "볼넷을 내주지 않아 만족스럽다"며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공이 한국과 달리 다소 미끄러운 편이라 아직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다. 높은 공을 수면 여지없이 맞겠더라"는 실전 데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잠자기 전 먹거나 고파도 다이어트를 위해 먹지 않고 그냥 잔다"며 "7kg 정도 뺐다. 지금 몸무게는 비밀"이라고 미소 지었다.

다저스는 이날 2-2로 비겼다. 류현진은 다음달 2일 스플릿 스쿼드 경기로 열리는 LA 에인절스 또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 중 한 경기에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신수(신시내티)는 이날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벤치를 지켰다. 중견수 겸 1번 타자는 빌리 해밀턴이 나섰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기성용 중앙수비 선택 탁월"

스완지시티 5-0 대승… 창단 첫 컵대회 우승

기성용(24·스완지시티)이 소속팀의 첫 리그컵 우승을 이끌며 영국 무대에서 성공시대를 활짝 열었다.

기성용은 25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경기장에서 열린 브래드퍼드 시티와의 캐피털원컵 결승전에서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62분여를 뛰며 팀의 5-0 대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8월 스완지시티 입단으로 잉글랜드 무대를 밟은 기성용은 데뷔 시즌 바로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고, 1912년 창단한 스완지시티는 FA컵과 리그컵 등을 합쳐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날 기성용은 주로 뛰었던 중앙 미드필더 대신 중앙수비수로 나서 부상으로 빠진 치코 플로레스의 공백을 충실히 메웠다.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는 "익숙지 않은 자리에서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기성용에게 평점 7을 줬다. /김민준기자

스피드스케이팅 유망주 임준홍 Jr 1000m 우승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을 이끌어 갈 단거리 유망주 임준홍(19·단국대)이 정상에 섰다.

임준홍은 25일 이탈리아 콜라보에서 열린 201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0m에서 1분11초37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남자 1000m를 석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남자 500m 1·2차 레이스에서 합계 72초210의 기록으로 준우승한 그는 1000m 우승을 거머쥐며 이름을 알렸다.

한편 여자 500m에서는 김현영(19·한국체대)이 정상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박주영 주전 멀어지나 새 사령탑 데뷔전 결장

박주영(28·셀타 비고)이 소속 클럽에서 새 사령탑의 눈에 들지 못했다.

박주영은 25일 열린 2012~2013 프리메라리가 그라나다와의 홈경기에 결장했다. 교체출전 명단에 올랐으나 끝내 벤치를 지켰다.

이날 경기는 경질된 파코 에레라 감독에게서 지휘봉을 이어받은 아벨 레시노 감독의 첫 경기로 주목됐다. 레시노 감독은 이아고 아스파스를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켰다. 박주영은 교체카드 석 장이 소진될 때까지 호출되지 않았다. 공격수 마리오 베르메호, 엔리케 데 루카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모양새다.

셀타 비고는 전반 24분 아스파스, 후반 36분 베르메호가 골을 터뜨려 그라나다를 2-1로 꺾었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홍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하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3 What's this? 사물에 대해 말하기(단수)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이 제공합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Whose notebook is this? Is it yours?
B Yes, it's mine. 당신 것은 어디 있나요?
A Here it is. OK, now let's begin.
B Good. But where's Mr. Green? 이것이 그의 서류 가방인가요?
A Yes, it is. Oh, 그분은 저기 계세요.

정답: Where is yours? / Is this his briefcase? / There he is.

생생영어팁

▶ 헷갈리기 쉬운 영어

Whose VS. Who's, There's VS. Theirs

심지어 원어민들조차도 헷갈려하는 이 두 단어들은 분명히 다른 쓰임과 뜻을 갖습니다. Whose는 '누구의 것'이라고 물을 때 쓰는 의문사이고요, 이와 발음이 거의 같은 Who's는 Who is를 줄여서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뜻은 '누가 ~인가요?'예요.

ex. Whose bag is this? 이건 누구의 가방인가요?
Who's that over there? 저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 '저기에 ~가 있다'라고 할 때 쓰는 There's는 There is를 줄여서 쓴 것이고 이와 발음이 같은 Theirs는 '그들의 것'이란 뜻이에요. 역시 스펠링과 뜻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ex. There's John by the tree. 저기 나무 옆에 존이 있어요.
Theirs is over there. 그들의 것이 저쪽에 있어요.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서는 같은 의미를 여러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익혀 두세요.

offer at a **reasonable** price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다	offer at an **affordable** price
review the proposal	제안서를 검토하다	**go[look] over** the proposal
is eligible for the benefits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is qualified for** the benefits
visit **every other week**	2주에 한 번[격주로] 방문하다	visit **every two weeks**
put in for a transfer	전근을 요청하다	**call for** a transfer
no later than May 31	늦어도 5월 31일까지	**by** May 31 **at the latest**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3. Respond to questions

What kind of ~? "어떤 종류의 ~를 ~합니까?"

이 질문 유형은 다루는 소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듣기 위해 제시된다. 영화의 예를 들면 구체적인 장르, 특히 좋아하는 줄거리 등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다.

Q **What kind of** clothes do you most often buy when you go shopping?
A I usually buy **formal clothes** for work.
I change clothes every day.
So I need lots of clothes.
I usually buy shirts and jackets.

Q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the most?
A I like to watch action movies the most.
It is very exciting and fun.
I can get rid of stress.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